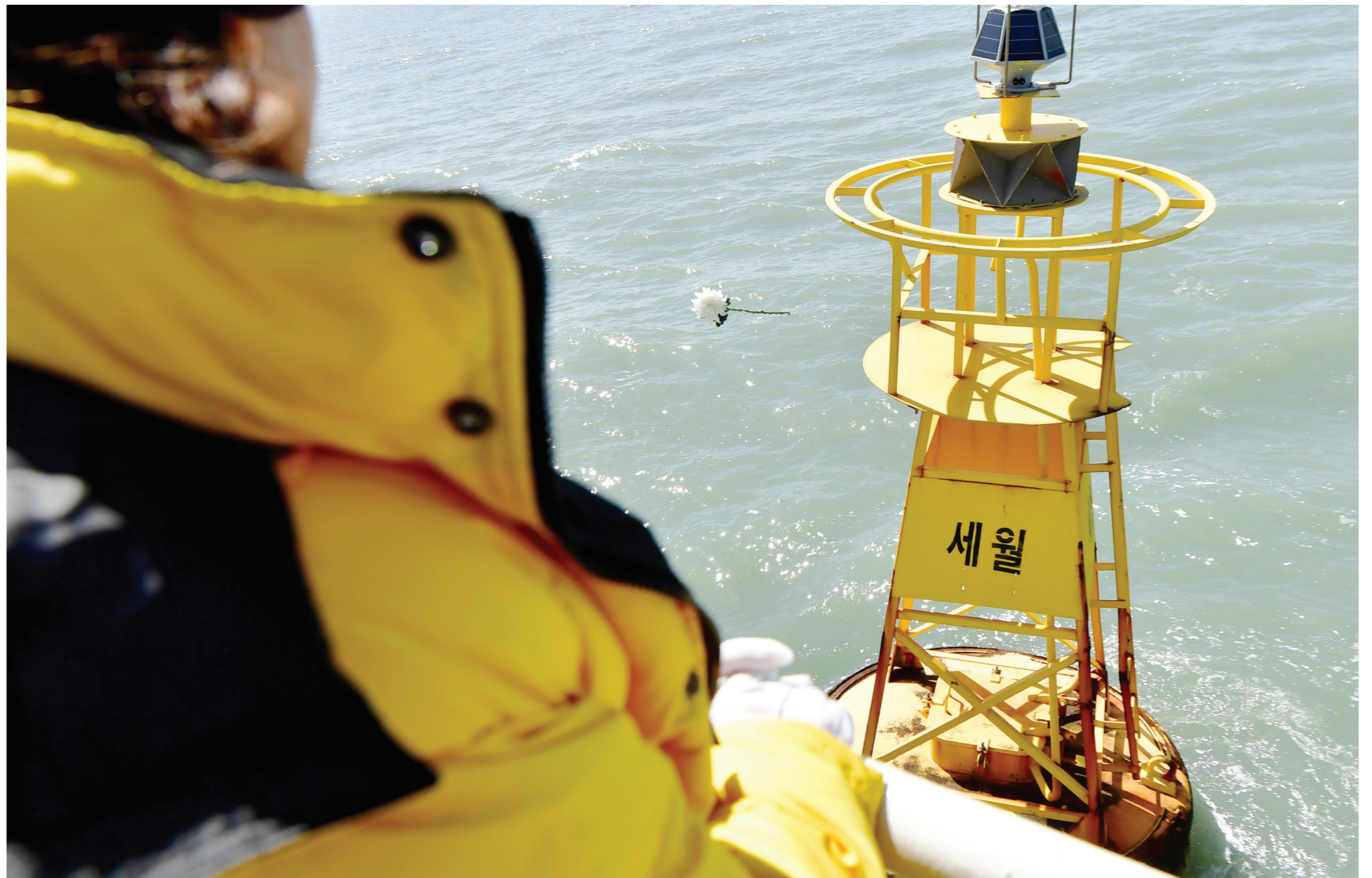


# 9년 전 멈춘 기억 시계...피붙이 찾는 애끓는 탄식에 '침묵'

### 세월호 유가족 22명, 참사 현장서 9주기 추모식 "진상규명 역행 현실...아이들 명예회복 반드시"

"또 올게. 미안하고 또 미안해."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일주일 앞둔 9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현장.  
 해경 1509 경비함정(1500t급)을 타고 참사 해역에 도착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유가족 22명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그간 참아온 애끓는 간절함을 쏟아냈다. 유가족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9년 전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자리에 세워진 녹색 노란색 '세월호 부표'.  
 선체 헬기착륙장 갑판에 올라 처연한 표정으로 부표를 바라보던 유가족들은 눈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따금 하늘로 고개를 치켜 들어올리기도 했다.  
 "선상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이라는 말과 함께 추모식이 시작되자, 유가족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1분여 가까운 시간 동안 묵념한 유가족들은 그간 묻어둔 아픈 기억이 떠오른 듯 흰 면장갑이 끼워진 손을 천천히 강하게 쥐었다.  
 묵념을 마친 유가족들은 헌화를 위해 선체 난간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가족들의 손에는 저마다 국화꽃이 한 송이씩 쥐어져 있었다.  
 부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른 유가족들은 하나둘 떨리는 손으로 푸른 바다를 향해 새하얀 국화꽃을 던졌다. 일렁이는 파도 위로 수십여 송이 국화꽃이 눈처럼 내려앉자 유가족들은 답답한 표정으로 일렁이는 수면을 바라봤다.  
 부서지는 파도를 보던 유가족들의 눈에는 서서히 눈물이 맺혔다. 노란 외투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던 유가족들은 이내 서로 부둥켜안은 채 흐느꼈다. 흐느낌은 모여서 통곡이 되고 통곡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돼 맹골수도 한복판에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2014년 4월 16일에 멈춘 기억 시계는 이날도 끝내 흐르지 않았다.  
 선상추모식을 마치고 경비함정이 뱃머리를 돌리는 순간에도 유가족들의 시선은 노란 부표에 머물러 있었다. 손에 끼워진 흰 면장갑은 서로의 눈가를 닦아주느라 어느덧 살갗의 색이 보일 정도로 적셔졌다.  
 부표를 바라보던 한 유가족은 "안 올게.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고 또 미안해"라며 구슬픈 목소리로 매번 반복되는 영원한 작별 인사를 건넸다.  
 김중기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가족들과 시민들이 바라는 성역없는 진



9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주변 세월호 참사 해역을 찾은 유가족들이 참사 자리에 세워진 부표를 향해 국화를 던지고 있다.

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9년이란 세월 속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리어 (참사 조동 조치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가 무죄라는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가 나온 데다 가족들을 모욕·공격한 국가 폭력 행위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음에도 여태 국가는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답한 현실에서도 유가족들은 슬퍼하기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염원하는 안전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뉴스

## “잠수사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

### 선상추모식 참여한 세월호 구조 투입 민간잠수사 “정확 진상규명해야...책임자 처벌·진상규명 먼저”



9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주변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뛰어든 민간잠수사 김상우(사진 왼쪽·52)씨와 배상웅(46)씨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더이상 슬픈 잠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서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김상우(52)씨는 참사 9주기를 일주일 앞둔 9일 “한 시간이나 아이들을 배 안에 대기시킨 무책임한 행동을 지시한 누군가가 처벌받지 않는 한 물 속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위해 물에 뛰어든 그 때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 맹골수도를 찾은 김씨는 바닷물에 녹슬고 낡은 세월호 부표를 바라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기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군 복무 시절부터 참사 당시까지 30여 년 가까이 잠수사 생활을 했던 그는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이듬해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도 투입돼 인명구조와 시신 수습 작업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시 ‘옆집 이웃의 아들과 딸’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차가운 맹골수도에 거침없이 뛰어든 그는 잠깐 수색 도중 떨어지는 짐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다.

잠수 경력의 마지막이었던 맹골수도는 그에게 있어 상처가 깊은 곳이지만, 아이들을 향한 커져가는 부채 의식은 그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좁은 객실에서 숨이 멎은 아이들을 수습했을 당시에 아직도 생생하다. 잠수사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큰 고통”이라며 “아이들 얼굴이 하나하나 눈에 떠올라 견디기 어려워 이날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구조 당국이 선체에서 아이들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저 선실에 대기시킨 이유는 무엇인지”라며 “무책임한 지

시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정확한 진상규명만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세월호 당시 맺은 인연으로 이날 선상추모식에 함께 참석한 동료 민간잠수사 배상웅(46)씨는 “추모식에 처음 참석한다. (참사 해역을 다시 찾은 이날) 당시의 음성과 냄새, 색깔이 떠올라 힘들었다”며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문득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과 이뤄지지 않은 진상규명·미흡한 책임자 처벌 절차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모두가 닮아있다”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b>호남신문</b> www.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랜드 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b>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b>동부취재본부</b>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b>서울취재본부</b>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b>기사제보 (062) 222-2580</b>	<b>광고직통 (062) 228-2580</b>	<b>팩스 (062) 222-5547</b>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활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